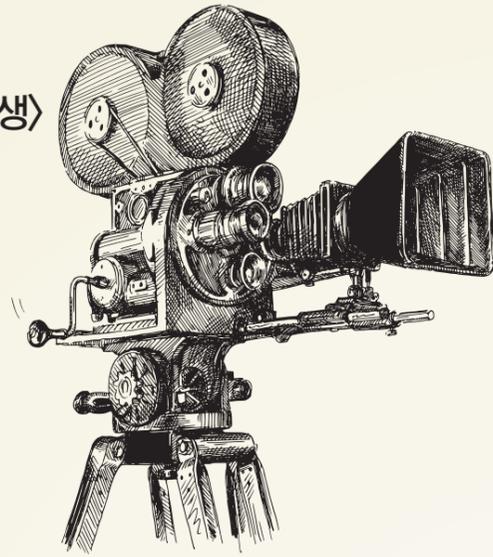


한국영화특선
 임권택 감독 특별전
 〈나는 왕이다〉, 〈장군의 아들〉, 〈서편제〉, 〈하류인생〉

한국 영화의 뒷심,
 임권택 영화를 만나다

특별한
 감독을
 선사하는
 EBS 영화

글
 정성일
 (영화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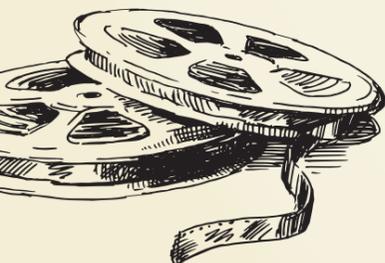
임권택, 한국영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다. 임권택 감독은 1962년 첫 번째 영화 〈두만강아 잘 있거라〉를 찍은 이후 쉬지 않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얼마 전 101번째 영화 〈달빛 길어올리기〉를 극장에 걸었다. 산수(傘壽)에 가까워지만 영화를 향한 그의 변함없는 열정의 발자취, 영화 〈나는 왕이다〉, 〈장군의 아들〉, 〈서편제〉, 〈하류인생〉를 통해 들여다보았다.

임권택의 유일한 스포츠영화 〈나는 왕이다〉

영국 영화평론가 토니 레인즈는 임권택의 영화를 가리켜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도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그 원이 다른 자리에서 회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럴 지도 모른다. 임권택의 영화 사이에서는 순간의 점핑이나 미학적 단절을 느끼지 못한다. 그의 영화들은 매우 완만해 보이면서도 어느 한 자리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자리로 이동해나간다. 마치 커다란 산과 산 사이를 잇고 있는 오솔길과도 같은 영화들. 그 자리에서는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어느새 풍경이 변해버렸음을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험이다.

때문에 〈나는 왕이다〉와 〈장군의 아들〉, 〈서편제〉, 〈하류인생〉을 한데 묶어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임권택의 발걸음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또한 그렇게 한국영화사 안에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권택은 그 스스로 자신의 1960년대 영화들을 돌아보기 싫다고 여러 자리에서 말했다. 심지어 1973년 그 자신의 50번째 영화 〈잡초〉 이전에 만들어진 모든 영화는 습작이었다고까지 단언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영화들은 임권택이 한국영화 안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만든, 한국영화의 황금시대의 일부이다.

그러한 것을 〈나는 왕이다〉가 보여주고 있다. 1966년 한국 최초로 세계 미들급 프로복싱 챔피언이 된 김기수의 열풍과 함께 제작된 이 영화는 임권택의 유일한 스포츠영화이기도 하다. 젊은 날의 신성일이 반짝반짝 거릴 정도로 빛나는 청춘을 보여주는 동안 거리의 건달을 권투선수로 이끌려는 권투도장 관장 김승호의 연기는 이 단조로운 영화에 이상할 정도로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버림받은 삶이 황폐한 세상을 견뎌내려는, 간절한 어떤 호소의 감정들을 같은 것이다. 여기에는 단지 연기의 문제가 아니라 임권택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정서가 묻어난다. 이제 막 데뷔한 지 4년이 되는 신인 감독 임권택이 자기의 마음을 아마추어 챔피언이 되기 위해 필사적인 청춘 신성일에게 담았다고나 할까.



EBS
 2012.
 SEPTEMBER

이어지는 듯 그러나 새로운 작품들 〈장군의 아들〉, 〈서편제〉, 〈하류인생〉

그런 다음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 거장이 된 임권택을 연속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임권택은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성찰해오면서 한편으로는 역사와 대결하고(〈짜코〉, 〈깃발없는 기수〉, 〈길소뜸〉, 〈개벽〉) 다른 한편으로는 인물의 내면 속의 심연으로 침잠해 들어갔다(〈만다라〉, 〈티켓〉, 〈씨받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런데 갑자기 〈장군의 아들〉이 만들어졌다. 일제 강점 하의 종로통 건달 김두환과 그의 패거리들이 혼마치깡(총무로) 하야시 일파와 시종일관 치고받고 싸우는 〈장군의 아들〉은 그에게 일종의 휴식과도 같은 철저한 오락영화이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면 “내가 60년대 상업 장르영화를 만들던 임권택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싶어진 거요.” 라고 설명했다. 그래서일까. 그는 여기서 오디션을 통해 전원 신인 배우들을 선발했고, 다시 한 번 거대한 세트장 안에 들어가서 좋았던 시절의 총무로 활극영화의 전통을 부활시켰다. 세 번째 영화 〈서편제〉는 임권택이 거의 평생을 통해서 추구해왔던 ‘한국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대답과 같은 영화이다. 개봉 당시 김영삼 전(前) 대통령도 관람해 가 ‘국민영화’라고 불렀을 정도로 흥행에 성공한 이 영화는 거의 모두가 외면한 판소리를 다시 대중들의 관심 안으로 끌어들었다. 이청준 작가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서편제〉는 거리를 떠도는 소리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인들의 가슴 밑바닥에 있는 한의 정서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예술로 승화시키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임권택은 자기의 영화 예술이 거의 하나의 정점에 도달해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버지와 딸, 그리고 남동생이 저 멀리 굽이 굽이 고갯길을 따라 진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걸어오는 5분 10초 동안의, 편집 없이 이루어진 장대한 장면은 보는 사람의 심금을 울릴 만하다.

그런 다음 임권택이 21세기에 만든 〈하류인생〉은 어쩌면 〈장군의 아들〉을 본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거리의 깡패로 시작해서 영화 제작자를 거쳐 완전히 타락한 부동산 업자에 이르는 한 남자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이 영화는 이승만 시대를 거쳐 박정희의 1975년 유신에서 끝난다. 이 음울한 시대를 다루면서 임권택은 명동의 역사라고 부를 만한 시대를 종종 쓸쓸하고 때로는 가혹하리만큼 냉정하게 그려나간다. 〈하류인생〉은 한편으로 임권택 자신이 보낸 젊은 날의 동시대에 대한 기록이며 관찰자 세상에 대한 실망의 표현이다. 긴 세월을 살아온 다음 결론 내린 세상에 대한 실망. 그것은 무서운 것이었다.

그러나 임권택 감독의 영화세계가 그렇게 종결지어진 것은 아니다. 그는 그런 다음 누이를 찾아 마침내 고향에 돌아오는 (〈서편제〉의 속편인) 〈천년학〉을 만들었으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한지 예인들의 세계를 다룬 〈달빛 길어 올리기〉에서 다시 한 번 세상에 대한 기대를 긍정한다. 그렇게 임권택은 종종 반대의 자리에서 원을 그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얼마 전에 임권택 감독을 만났다.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다.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멈추더니 문득 창문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말했다. “여름이 깊으니 곧 겨울이 올 거예요. 그러면 다음 영화를 찍어야 할 텐데, 꼭 저기서 누가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아.” 그는 지금 102번째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

한국영화특선 「한국의 거장 - 임권택 감독 특별전」
 〈나는 왕이다〉 9월 2일(일) 23:00~01:30
 〈장군의 아들〉 9월 9일(일) 23:00~01:30
 〈서편제〉 9월 16일(일) 23:00~01:30
 〈하류인생〉 9월 30일(일) 23:00~01:30

